



글 쓴 이
.....

가정학과 교육 및 생활 개선

현 병 진
문교부 장학관

가정학회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채롭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백 실은 책자로서 발행하게 된 것은 우리 가정학회가 그만큼 발전을 하여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실로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기 나는 축하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본학회에 더욱 영광을 비는 마음에서 본학회의 회원과 특히 교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원래 대한가정학회의 발족은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빼앗기고 가면과 가식에서 감광질팡하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도로 갖게 된 해방의 선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하면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밝히지는 않겠으나 당시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가정과 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회동하여서 우리생활의 바른 모습을 찾으려는데 우선 가정과 교육의 혁신과 충실이 급선무임을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그 결과 가정학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른 것이니 본학회는 어느 학회보다도 국가의 체면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바탕을 수립하였다고 자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13년 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심 양면으로 본 학회는 결코 평탄한 길을 밟지는 못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가정과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거의 '왜식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육의 길은

여기서 만족하고 머물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서 우리는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절실히 바라지는 것입니다. 독립 국가의 백성으로써 세계의 수준에 오르려는 이 마당에 생활 조건과 양식이 어딘지 모르지 불균형과 도순 투성이라는 것은 어성이 아닌 남성들도 진실로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우리의 생활이 개선되고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정신과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경제적 조건으로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조건 혹은 정치적 조건의 부진으로 돌리려고만 하고 생활 개선이나 향상은 아예 포기하고 노력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으나, 나는 정반대로 생활 개선과 향상이 먼저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운다는 사실에 우리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 세계 대전시 패망한 독일이 십년 내에 다시 세계 최대의 부강 국가로 부흥하자라는 목표 아래 국민 총력기 운동을 전개했을 때 정부는 전국민에게 실천 사항 16개 조항을 발표한 가운데 그 하나는 "감자의 껍질은 생것일 때 벗기지 말고 익힌 후에 벗겨라" 하는 것으로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즉 독일의 주식품은 감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소비하듯이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감자의 소비량이 막대한데 비추어 생겉질에서 나가는 양분의 낭비를 막자는 운동이었던 것은 가히 짐작이 가는 것이며 웃음게 보기 쉬운 겉질 문제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복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면 누구나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 많은 실례는 생략하고 생활 개선을 촉진하는데 다음 문제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사 학교에서 혁신된 가정과 교육의 내용이 완전에 가까우게 이루어 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낭비에 돌아가고 말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나 지역 사회에서나 간단하게 수공이 가고 환영을 받는 것만이 반드시 이상적인 가정과 교육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은 최종한 말이지만 우리의 생활 모습은 지역에 따라서는 보수적이며, 심하게 말하면 후진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정과 교육의 난점이며 고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행히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역 사회 학교 건설 운동을 못토로 하게끔 문교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가정과 교육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마치 가정과 교육의 촉진을 위해서 세워진 방침 같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사가 그 운동을 추진하고 생활하면 그럴수록 가정과 교육의 난관은 하루라도 속히 해결에 접근할 것입니다. 모인사의 말을 빌린다면 지역 사회 학교의 건설이란 가정적인 학교의 건설이요, 학교적인 가정의 건설이라고 쉽게 고쳐서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내에서 학생들과만 오로지 접촉하던 교사의 활동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어머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부녀자들과도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P. T. A같은 기회에 가정에서의 희망과 건의를 받아들임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발전적인 구상과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고 계몽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렇게 되므로써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하는 의도가 가정에 납득이 되고 물 이해에서 벗어지는 상호간의 비난도 줄고 따라서 생활 개선 운동의 템포도 좀 빨라질 것을 확신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상당한 성과를 견우고 있는 여학교의 수는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한 수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능률적이고 또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왕 가정학을 전공한 분들이 비록 직장은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USOM계획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전국 13개의 농촌 교도소에 74명 교도사(Home Economics Extension Worker)가 배치되어서 농촌생활 제몽 운동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임자 Macleod 여사에게서 고충담을 들으면 첫째,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남성들이 이해성이 없고, 둘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갖는 것을 천하게 여기려 하고 셋째,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실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지망한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도사로 나오는 직업을 가지면 계속하여 출신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와 지식을 나누어 받고 누구보다 빨리 자기 지역에 전달하는데 무한한 만족과 영광을 느끼는 점을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학회 회원에게 전부 교도사가 되어 달라는 말은 물론 아니고 나만의 향상된 생활은 영위하기 힘든 것이니 이웃과 나누어 갖는 연구를 한다면 전국의 가정과 전문 출신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는만치 무슨 명칭의 회의건 모임을 가져서 생활 개선에 푸라스하는 일도 한 가지 꼭 갖드려 달라는 부탁에서 Macleod 여사의 고충담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내집에서 아무리 쥐를 잡고 파리를 잡아도 이웃이 위생 관념이 결핍한 탓으로 잡어도 잡어도 한이 없는 경험만 가지고도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없이 내집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다음 가정학회지에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생활과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서 이 회지를 더욱 빛나게 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